



도로변 점령한 낙엽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도로변에서 떨어진 가로수 낙엽들이 시나브로 깊어지는 가을을 알려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주민참여형 용천수 관리 지원체계 마련을” 제주환경운동연합 16일 정책브리프 발표·제안

제주에서 주민주도형 용천수 관리가 지속되기 위해선 주민과 공공의 명확한 책임 구분을 포함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용천수 정책브리프 2026-주민주도형 용천수 관리,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단체에 따르면 도내 용천수 634개소 가운데 관리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2020년 45.2%에서 지난해 52.1%로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용천수 관리계획(2027~2036) 중간보고회에

서 제시된 예산안에서 마을 공동관리체계 지원금은 마을당 연 120만원에 불과했으나, 친환경 정비사업은 1개소당 약 1억6700만원으로 제시됐다.

단체는 “사업의 성격과 지원 단위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설 정비에 비해 주민의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주민주도형 용천수 관리가 지속되려면 주민이 할 수 있는 관리와 공공이 책임져야 할 관리를 구분하고, 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존폐 10월 윤곽

민간 주도 TF, 의견 수렴 거쳐 개선 권고안 마련
위성곤 지사 “권고안 토대로 정책 방향 확정 예정”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를 핵심으로 한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존폐 여부가 오는 10월 확정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버스) 이용자들로 구성된 민간 주도 태스크포스(TF) 협의체를 구성해 제주형 BRT에 대해 10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이후) TF협의체가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면 (권고안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BRT는 지하철처럼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버스가 도로 한 가운데 마치 섬처럼 조성된 섬식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도정이 서광로 3.1km 구간(신제주 입구 교차로~광양사거리)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또 양문형버스는 버스 전용 중앙차로로 운행한다.

오른쪽에만 출입문을 둔 기존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 양방향에 각각 1개씩, 총 2개 차로 쪽에 설치된 ‘상대식 정류장’에 세워야하지만, 양문형버스는 왼쪽으로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버스가 정차하는 섬식정류장은 1개 차로만 점유한다. 승객 대기 공간 확보 때문에 인도 폭을 축소해 설치해야 하는 상대식 정류장과 달리 섬식정류장은 인도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형 BRT는 이런 장점에도 여러 민원과 문제를 낳았다. 인도를 유지하는 대신, 기존 차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섬식정류장을 설치하다보니 일반 차량 차로 폭은 예전에 비해 감소해 운전자들 불만이 속출했고 유턴 구간 폐쇄와 일부 구간의 S자 형태 차로 등으로 인한 혼선도 빚어졌다.

또 양문형버스로 전부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형 BRT가 도입되다보니 일반 버스들은 서광로

구간에서도 여전히 상대식 정류장에 정차해 해당 구간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버스에 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서광로 기피 현상과 서광로 인근 도로에는 차량 통행량이 역으로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불렀다.

이런 이유로 위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선화했다.

단 위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는 여전히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TF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부친 회사 여직원 불법촬영
제주지법, 40대에 ‘징역 3년’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밑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와 지난해 7월 쯤 사내 여자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수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고의숙 ‘입학준비금’ 공약 절반 이하로 줄어드나

초등 70만→30만원, 중·고교 50만→20만원으로 조정
도민평가단 공약 변경안 수용… 10월 최종 공약 확정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선거 기간 약속했던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이 당초보다 절반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민평가단 3차 회의에선 이런 내용의 조정 안건이 승인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 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올해 처음 도민평가단을 운영해 왔다. 앞서 지난 1일 첫 회의를 시작한 도민평가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분임별로 검토해 온 공약 조정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도민평가단이 심의한 공약 조정 안건은 모두 7건이다. 고의숙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교육청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약들이 포함됐다.

그중 하나가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이다. 당초 고 교육감은 기존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도내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노트북 지급)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7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 교육감이 내년 시행을 예고한 입학준비금 지원 규모는 초등 30만원, 중·고등 각각 20만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평가단이 이 같은 변경안을 수용하면서다. 3차 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표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먼저 도교육청은 현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사유와 근거를 도민평가단에 설명했다.

고 교육감이 약속했던 ‘제주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제주4·3평화교육관 설립’도 각각 ‘생태전환교육 지역 거버넌스 구축’, ‘도내 4·3

평화공원 역사관 등 기존 유관기관 연계 인프라 활용’ 등의 방향으로 변경된다. 도민평가단은 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내 인프라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IB 고등학교 추가 지정’에 대한 조정안은 현재 안건 중 유일하게 부결됐다. 도민평가단은 고 교육감이 ‘서부지역 IB 고교 1개교 추가 지정’을 약속했던 만큼 공약실천계획에서 ‘서부지역’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공약이 서부지역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찬반 의견은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도교육청과 도민평가단 운영을 공동 주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찬반 의견이 동수일 때도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민평가단의 심의 결과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은 한 달 안에 도교육청에 전달된다. 고 교육감은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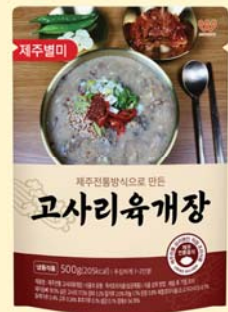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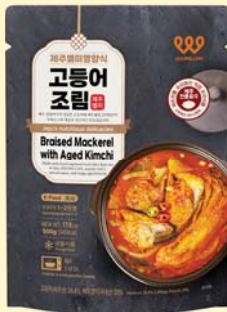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